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 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수출입과장 안병화(2110-5331), 사무관 김성수(2110-5332)

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2011 수입상품전시회 개최

– 중국, 대만, 라트비아 등 50개국 200여개 업체 참여 –
–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역할을 하여 "세계 모두의 동반 성장"에 기여 –

□ 2011년 6월 9일 COEX 1층 A홀에서 2011 수입상품전시회가 개막되어 6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임.

○ 이날 개막행사에는 이주태 한국수입업회회장, **김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**, **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**, **발디스 돔브로브스키 라트비아 총리**,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**20여개국의 주한 외국대사** 등이 참석하였음.

□ 지식경제부와 한국수입업협회는 2003년부터 매년 수입상품전시회를 개최(금년 9차)하여 왔는 바,

○ 동 전시회는 우리나라와 교역국과 **무역불균형 시정**에 기여하고 **수입의 필요성과 무역에 대한 균형된 시각**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음.

□ 특히 금번 전시회에서는 **발디스 돔브로브스키 라트비아 총리**가 직접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자국의 경제현황, 문화와 관광상품을 소개하였고,

○ 우리가 최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**자국의 일류상품을 한국시장 소개하고, 자국의 문화를 체험**하는 장을 마련하여 양국간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.

□ **지식경제부 김정관 제2차관**은 수입상품전시회에 대하여

○ 한국은 수출만을 중시하는 국가가 아니고 **수입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**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, **교역확대를 통하여 개도국과 한국 모두 win-win** 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,

○ 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많은 개도국이 **수입상품전시회를 통하여 한국시장 진출**의 기회를 갖기를 강조하였음.

□ 지식경제부는 수입상품전시회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와 잠재적인 주요 교역국들과 서로 이해하고 교역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.

<참고>

2011 수입상품전시회

1. 개요

○ 목적 : 정부차원의 무역불균형 시정 노력으로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해외 상품정보를 제공

○ 기간 및 장소 : 2011.6.9(목)~11(토), 코엑스 A홀 3・4실

○ 전시규모 : 40개국 160여개 업체 (1,600평, 약 200여개 부스)

2. 주요행사

□ 개막식 행사

○ 일시 및 장소 : 2011. 6. 9(목) 11:00~11:55, COEX A홀 3·4실 앞

○ 내용 : 참석자 소개, 전시회 개최목적 설명, 테이프 컷팅

- 주빈 : **지식경제부(차관님)**, **라트비아 수상**, **통상교섭본부장**, 외교부(지역통상국장), 참가국 주한대사, 기타 무역유관기관 등

* 차관님 역할 : 테이프 컷팅 및 전시장 순회

□ 무역정책 및 수입시장 설명회

○ 목적 : 주한 외국공관의 무역담당자에게 한국의 수입시장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국가간 교역 확대를 위한 정보를 교류

○ 일시 및 장소 : 2011.6.9(목) 15:00-16:30, 전시회장내 세미나룸

○ 초청대상 : 주한 외국공관 대사 및 상무관, 주한 외국무역 관련 기관장

* 우리나라의 무역진흥정책에 대하여 수출입과장이 설명

□ 기타 행사

○ 오찬행사 : **무역정책관 참석 (인사말씀)**

○ 수입업 무료창업 강좌

○ 경제협력 및 무역확대방안 포럼

○ 소셜 네트워크 활용 비즈니스

○ China Day : 사진전, 포토존, 전통공연 등